

장르문학 작가 양성-웹소설 콘텐츠 개발 '손잡다'

광주대 문창과-팬덤 콘텐츠팩토리 및 팬덤박스 MOU 체결 장르문학 날로 인기 더해... 현장교육 강화·우수작가 양성 기회

장르문학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웹소설 시장 자체가 커진 것도 요인이지만 국내 작품의 수준이 높아진 데다 창작을 하는 작가 수도 증가한 때문이다.

흔히 장르문학이라고 하면 추리, 판타지, SF, 등으로 대표되는 특정 장르의 작품을 일컫는다. 일반 독자의 흥미와 기호를 중시하는 장르 문학은 기존의 전통문학 내지는 순수문학과 작품의 경향이 대비된다. 독자 입장에서 장르문학은 작품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준다. 현실과 유리된 판타지를 좋아하는 이도 있고, 정교한 두뇌 플레이를 서사화한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다. 시종일관 긴장을 유발하는 스릴러물에 필이 쫓힌 독자들도 있다.

최근 광주대 문예창작과와 (주)팬덤콘텐츠팩토리 및 팬덤박스 가 장르문학 작가를 양성하고 웹소설 콘텐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해 눈길을 끈다. 협약식에는 광주대 문예창작과 김중일 교수, 조형래 교수, (주)팬덤콘텐츠팩토리 및 팬덤박스 박세현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장르문학 관련 교육을 펼쳐온 광주대 문예창작과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창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학생들을 웹소설, 장르문학 작가로 양성하는 것은 물론 졸업생들이 웹소설 전문 PD와 같은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협약을 맺은 팬덤콘텐츠팩토리는 웹툰 기획 및 웹툰 작가 매니지먼트사로 현재 50여 명 작가의

30여 작품을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투믹스, 북툰 등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웹소설 원작으로 한 웹툰을 창작, 연재해 카카오페이지, 북툰, 네이버 시리즈, 미스터블루 등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웹소설 '캔디맨', '모어 댄 블루'는 연재 후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팬덤박스는 다양한 장르의 단행본, 에세이, ebook 콘텐츠를 기획, 발행하는 출판사다.

시인인 김중일 교수는 "문예창작과는 장르문학 소모임인 '분서경YOU'를 운영하는 등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커리큘럼도 새롭게 반영해 현장감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작가를 지망하는 대학생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소설과 시를 쓰는 문인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SF, 판타지 등과 같은 웹소설 작가나 장르문학을 지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특정 장르의 작품을 좋아해 문예창작과에 진학해서도 그쪽 방향으로 진로를 잡은 이들이 많다.

"팬덤" 쪽은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또한 창작한 콘텐츠의 내용이 좋다면 피드백도 받고 작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전통문학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을 구축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통적인 문학의 영역과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



팬덤 콘텐츠팩토리 및 팬덤박스의 인기 웹소설 '캔디맨', '모어 댄 블루'.



팬덤 콘텐츠팩토리 및 팬덤박스의 인기 웹소설 '캔디맨', '모어 댄 블루'.

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서 박세현 '팬덤' 대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학생들 작품을 발표, 연재하고 나아가 작품을 기반으로 한 만화 콘텐츠 제작 작업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일본이나 유럽 쪽의 장르문학 작품을 수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작가들의 작품 퀄리티가 떨어진다든 편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장르문학

의 수준도 높아졌고 그만큼 작품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졌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으로 '운석사냥꾼'이라는 장르 소설을 발표했던 김용태 작가는 "작금의 한국 장르문학은 감정이입도 잘 되고 스토리도 좋은 편"이라며 "독자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문학성보다는 즐거움인 탓에 선택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가들이 북유럽문학처럼 재미와 함께 문학적 메시지를 반영하는 쪽으로 창작을 한 게 인기의 한 요인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여고 교사 이근택 첫 시집 '장미를 사랑하고 있어요' 발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는 재미가 있다. 일명 산문시는 읽어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의미가 들어온다. 고도의 수사나 축약이 없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유머와 기지, 풍자까지 곁들여지면 새로운 읽는 맛을 느낄 수 있다.

전남여고 교사로 재직 중인 이근택 시인이 첫 시집 '장미를 사랑하고 있어요' (문학들)를 펴냈다. 수록된 시들은 한 순간이 신기루처럼 빛나는 작품들이다. 특히 시집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작의 시들은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읽는 맛이 쏠쏠하다. 기발한 발상과 거듭되는 반전으로 삶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는다.

'거짓말탐지기', '던져 버린 구두 굽', '장미나라의 영화', '봉' 등이 그러한 시다. 개인사와 시대사를 아우르는 '저수지 도깨비', '노인들의 제삿날', '유리공방' 등에서도 동일한 느낌이 묻어난다. 하나의 낱말이나 구절이 아닌 한 편의 이야기에 시작 아우라가 감도는 것은 알레고리 때문이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어. 그리고는 야근하는 동료들에게 흥분된 어조로 나의 발견을 설명했다.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나의 태도가 너무 진지하니 훗시나 하고 나를 따라오더군. 난 장미와 나의 사랑을 보여줬지. (중략) 하지만 나는 천천히 그녀의 팔을 떼어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저는 이미 장미를 사랑하고 있어요."

'거짓말탐지기'에서, 내가 사랑한 여인은 서울경찰청 거짓말탐지기 담당자다. 그녀에게 나는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한다. 쓸쓸함을 달래려고 창가의 장미 잎을 따서 먹던 화자는 거짓말탐지기의 음극과 양극의 패드를 장미 잎에 붙인다. 놀라게도 탐지기 용지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시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직업이 거짓말탐지기 담당자라는 사실이 이채롭다. 시인은 사랑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역설적 상황에 '거짓말탐지기'를 장지해 놓은 것이다. 산문이, 이야기가 시가 되는 극적인 반전이 표출된다.

이근택 시인은 대학시절 조선대 문학동인 '석월'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남여고 시모임 등 제자들과 함께 시 공부와 창작을 펼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비아파트 세번째 뮤지컬 '뱀파이어왕의 비밀'

24~2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주)극단 코스모스(대표 박석인)가 아동·가족 뮤지컬 '신비아파트-뱀파이어왕의 비밀' (사진)을 공연한다. 24~2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공연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뮤지컬 신비아파트' 시리즈의 3번째 시즌을 맞는 무대다. 아동용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시리즈를 뮤지컬로 각색한 것으로, 원작의 줄거리를 다양한 무대효과와 액션 퍼포먼스 등을 활용한 박진감 있는 연출로 선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1시간 10분 동안 펼쳐지는 이번 작품은 신비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이유없이 쓰러지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퇴마사 최강림과 이운은 이 현상의 원인을 찾던 중 뱀파이어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뱀파이어들을 조종하는 배후자로 뱀파이어왕 이안을 의심한다.

한편 아들 두리를 위한 생일 파티를 약속한 아빠 구인남이 돌연 뱀파이어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신비와 음비, 하리 일행은 그를 구하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김중해가 작·연출을 맡았으며 전상현이 음악, 이현정이 안무를 담당했다.

R석 6만원, S석 5만원.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스24에서 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CC시네마테크 소장작 토론토국제영화제 초청

'우리는 여전히 눈을...' '2분 40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이 운영하는 ACC 시네마테크 소장 작품 2편이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ACC는 20일 존 토레스 감독의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 (사진)와 한옥희 감독의 '2분 40초'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예술영화 부문 '파장'(Wavelength) 섹션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존 토레스 감독은 12편의 단편과 5편의 장편을 제작한 필리핀 영화감독으로, 베를린과 로테르담 등 세계적 영화제에서 기존 작품들이 소개된 바 있다.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는 필리핀 마닐라의 영화 세트, 촬영지 주변 풍경을 플라주한 실험 영화로 2018년 ACC 시네마 펀드 사전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됐다. '2분 40초'는 1970년대 한국 최초 여성 실험 영화 집단 카이두를립 출신인 한옥희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의 모습을 영상에 옮겼다. 특히 이 작품은 1975년



제1회 한국 청소년영화제 우수상을 받고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지만 이후 공개 상영된 적이 없다.

한편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9월 5~15일 열리는 칸-베를린-베니스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힌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김승우 감독의 '나를 찾아줘'는 디스커버리 부문에 초청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행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용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그집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옆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배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틀스크린, 전동틀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틀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